



코스피 2307.07 (+11.81)	코스닥 790.25 (+14.73)
금리 (연이자율) 2.12 (변동없음)	환율 (1달러) 1120.60 (+1.90) (1일)



[르포]
용·여 뜨니 마포 들썩
'억' 소리나게 오르는 집값
03

밥그릇 뺏길라... 비정규직 차별하는 정규직 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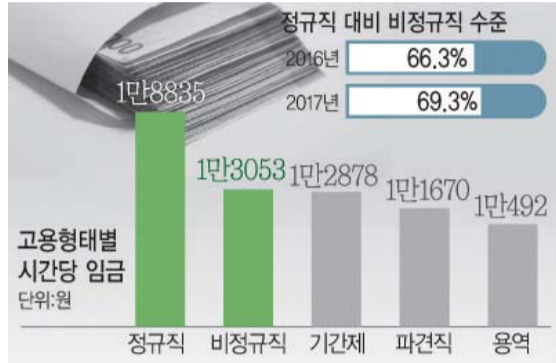
실패의 경제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12) 勞勞갈등

"파견계약직이라 9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막막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 강도는 세서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같은 월급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곧 삼십대라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일순위입니다." (방송국 파견 계약직 A씨)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는 1~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않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여기서 기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경력이 보잘것 없고 나이도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견기업 계약직 B씨)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양극화 현상이 떠오르는데 오로지지만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의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업체 규모	정규직	비정규
300인 이상	100%	65.1
300인 미만	54.3	40.3

※3만3000개 표본사업체 근로자 약 97만명
2017년 6월 급여계산기간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뉴시스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임금·복지 등 차별 이뤄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기존 정규직원 "처우 나빠져 동일대우는 역차별" 등 불만

결었지만, 정규직의 이기주의의 표출로 연대가 무산되고 노노(勞勞)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무는 '한지붕', 임금은 '천차만별'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경력·자격·근속연수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격차가 9.4%에 달했다.

20대와 여성에 한정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41.2%)으로 남성 비정규직(26.3%)보다 14.9%포인트나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울타리에서도 한 칸으로 물러나 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은 82.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도 정규직은 약 85~99%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勞勞) 어찌
이 같은 직장 내 차별에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찬

반 논쟁을 일으키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불씨는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적 사례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체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대상자 바뀌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규직 전환 심사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동등한 평가가 없는 동일대우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

나면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지난달 10일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축소 우려가 불거진 지도 오래다.

공공기관 입사 준비생 C씨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이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노갈등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논의가 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이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전략을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민기자 silkni@metroseoul.co.kr

편의점 상비약 운명 'D-6' 약사회-편의점, 대립 심화

복지부 상비약심의회 8일 개최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 비의약품 품목 조정 회의를 앞두고,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간 '상비약' 논쟁이 정점으로 치닫하고 있다. 거리로 나온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 부작용 등을 호소하고 있는 한편, 편의점 업계와 시민 단체 등은 약사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부의 편의점 판매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약 33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집회는 내달 8일 열리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겨냥해 열렸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사제와 제산제 등의 추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 증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 수호 약사결기대회'에서 조찬회 대한약사회장(왼쪽)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정책과 재발 친화적 의약품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와 함께 편의점의 약사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늘리는 대신, 보건소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정부 재원을 활용한 공공 심약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편의점 협회 측에서도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

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약사회가 국민 건강 수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협회는 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해 소비자들의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현재 판매 중인 13개 품목의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협회는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의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약사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실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의약품의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의 부작용 발생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서울 기온 39.6도

역대급 폭염에 불게 물든 광화문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일반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모습.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낮을수록 푸르게 표시된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7월 수출 519억 달러... 월간 실적 '역대 2위'

산업부, 수출입 동향 발표

최근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만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518억8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하며 월간 실적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1, 2월을 제외하고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7월 누적 수출도 역대 최고다. 수입은 488억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다.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했고, 국내 생산에 필요한 컴퓨터 기억장치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줄었다.

무역흑자는 70억1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7월 누적 일평균 수출도 22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45.2%), 철강(34.0%), 반도체(31.6%), 석유화학(24.1%), 일반기계(18.5%), 컴퓨터(10.0%), 자동차부품(7.2%), 섬유(6.6%), 무선통신기기(4.0%), 디스플레이(2.4%)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용·여 뜨니 마포도 ‘들썩’... ‘억’ 소리나는 강북 집값

〈용산·여의도〉

Q 르포 | 마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니

재개발 계획에 낙수효과 특목호가 뛰고 매물 회수후 관망도 마포구 소형아파트 10억대 진입 지난 1월 8.3억원대 아파트 10억

#. 박 모씨(36)는 서울 마포구 ‘라’아파트 매매 직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주인(매도자)이 이를 만에 매가가를 2000만원 더 올렸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망설이자 집주인은 “앞으로 마포 일대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매물을 회수해버렸다.

서울 마포일대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이 불을 지폈다.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인접 지역인 마포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하루아침에 수 천 만원씩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며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잘 나가던 마포, 더 잘 나간다
“‘라’아파트요? 매물이 아직 있는지 확인해봐요.”

지난달 31일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시로 아파트 물건을 확인했다. 최근 들어 매물이 일찍 팔리거나 회수돼 문의가 들어오면 재확인해야 한다고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천이나 부산 등 지방에서도 투자자들이 자주 문의·방문한다”며 “워낙 아파트 가격이 자주 올라서 잠깐 망설이면 매물이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엔 박원순 서울 시

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여의도·용산 일대 재개발 계획)’이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꾸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역은 서울역까지 지하화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과 쇼핑센터를 들이고 각종 광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역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남 일대와 견줄 정도로 급격히 치솟고 있다. 그러자 인접해 있는 마포구까지 기대 심리가 확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2% 떨어진 가운데, 서울은 0.23%에서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개발호재(동대문구 등), 직주근접(마포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북권에선 마포구가 0.56%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값은 5.91% 상승했다.

B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는 워낙 교통 여건이 좋아서 수요가 높고 가격도 상승세였다”며 “여기에 최근 여의도·용산 집값이 뛰면서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여의도·용산보고 집주인들 ‘뒷집’ 실제로 마포구의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대에 진입했다.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대표적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59.95㎡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8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엔 9억9500만원(18층)까지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포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올랐고, 현재는 10억 3000만원~10억 50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와 있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84㎡도 지난 1월 저층은 9억원대(9억7500만원·2층)였으나, 5월 12억8500만원(7층)으로 치솟았다. 현재는 같은 타입 층중이 13억 2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114.73㎡도 올해 1월 12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중순엔 14억원(5층)에 팔렸다.

공덕동 ‘래미안공덕 5차’ 59.95㎡도 지난 1월엔 6억8000만원(1층)~7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이어 3월 7억9000

만원(10층)~8억9500만원(13층), 6월 말 9억 원(8층)에 거래됐다가 지난 주말엔 9억 4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용강동의 경우 마포역과 인접해 있는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59.98㎡ 타입이 6월에 10억원(9층)~10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1억원에 호가되고 있다. ‘래미안마포리버웰’도 59.98㎡이 올 1월 9억원(12층)에 팔렸는데, 현재는 저층도 11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말에 9억2000만원에 내렸던 매물을 월요일에 2000만원 더 올리라고 하더라”며 “최근 1000만~2000만원 올리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이마저도 회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의도, 용산의 집값 상승세를 보고 하반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2억달러 규모 세계최초 지속가능채권 발행

그린본드와 소셜본드 결합된 형태 사회적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 목적

롯데월드타워가 지난달 31일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번 지속가능채권의 만기는 3년, 발행 금리는 3개월 리보(Libor) + 92.5bp(1bp = 0.01%p)이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시장은 해외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본드 발행액은 총 1555억 달러, 소셜본드는 총 156억 달러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이 발행됐고 지속가능채권은 이번이 두 번째 발행이다. 롯데월드타워는 민간기업으로서 전 세계 초고층 빌딩 중 최초로 달러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롯데물산이 이번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가 결합된 형태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설비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기초로 하고, 소셜본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프로젝트의 실행에 근간을 둔다.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가 설정한 발행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발행원칙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 평가와 선택의 절차, 수익의 관리, 보고 등 4개 우선 요소로 구성되었다.

롯데월드타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발전 및 운영을 고려했다. 완공과 동시에 미국 그린빌딩협회(USGBC)로부터 세계 신축 초고층 빌딩으로는 처음으로 LEED GOLD 인증을 받았고, 내셔널 엔지니어링 액셀런스 어워즈 본상도 수상했다. 현재 수축열 및 지열 냉난방시스템, 태양열 집열판,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중수 및 우수 재활용, 연료전지 설치, 생활하수 폐열 회수 등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에너지 사용량 중 15%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해 롯데월드타워는 직간접적으로 약 3만 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롯데월드몰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원은 9200여명이고, 이 중 사회적 일자리는 약 900여개다.

박헌철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발전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MW Korea



BMW 코리아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BMW 코리아는 일련의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차량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EGR 모듈 교체와 EGR 파이프를 클리닝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리콜에 앞서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고객분들께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 센터 및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를 24시간 운영하여 일일 약 1만여 대의 안전 진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요청 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렌터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렌터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점검 후, 안전 진단 확인서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차량을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신 이후에도 EGR 모듈로 인한 화재가 발생 시 동급의 신차로 교환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BMW 코리아 및 BMW 공식 딜러사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전사적으로 조속히 리콜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주) 임직원 일동

대상차종 확인 및 서비스 안내

1. 리콜 대상 차량 확인

- BMW 코리아 홈페이지 리콜 대상 차량 조회 서비스
www.bmw.co.kr/ko/topics/owners/bmw-recall.html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국토부 자동차 리콜 신고 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2.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및 리콜 서비스 예약처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BMW 예약 전용 이메일(service@bmw.co.kr)
- BMW Plus 어플리케이션(리콜 예약만 가능)

포스코 최정우 취임후 첫 조직개편... 철강부문장에 장인화



오인환 사장, 인재창조원장에 전념 3인체제 유지·연말 대규모 조직개편

올 연말까지 조직 및 인사개편을 예고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후 소폭으로 첫 인사를 단행했다.

1일 포스코와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기존 철강 1·2부문을 통합해 만든 철강부문장에, 철강 2부문장을 맡고 있던 장인화 사장(작은 사진)을 기용했다.

철강 1부문장과 포스코 인재창조원장을 겸직했던 오인환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다만 대표이사직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유지한다.



장 사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입사했다. 포스코에서는 신사업실장,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기술투자부문장 등을 역임한 쉿물 전문가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으로서 그룹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철강사업부문은 1·2부문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장 사장에게 총괄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과 오 사장은 모두 최 회장이 포스코 회장직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현재 최 회장, 장 사

장, 오 사장 3명이 구축한 '3인 대표이사 체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개편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지원센터는 조직간 일체감 조성 차원에서 경영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지원본부의 홍보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 커뮤니케이션과 인사, 노무 등을 맡는 경영지원센터

는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홍보실도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까지 담당토록 했다. 대외협력팀과 사회공헌팀이 커뮤니케이션실에 통합됐다.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존 한성희 부사장이 그대로 맡는다. 커뮤니케이션실장도 기존 홍보실장인 이상춘 상무가 담당한다.

앞서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비엔지니어 출신이지만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철강업계 전문가가 됐다"며 "엔지

니어 출신들이(회장을) 많이 해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나 공정이 제철소에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경제성이나 상업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개혁과제에 포함해서 포스코를 더욱 더 실질적이고 실질을 증시하는 강건한 체제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그룹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에서 과거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분야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영입해 포스코와 다른 진취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

SK텔레콤, 대구시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SK텔레콤-대구광역시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 차세대 전력으로 자립도시 목표

SK텔레콤과 대구광역시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7월 31일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독립형 전력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1차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에너지수요관리형 ESS(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및 지열 활용 융·복합 분산전원, 종합정보센터 등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업체당 평균 20% 이상의 전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 중 LED 전문업체 '테크엔'이 전력요금 0원을 기록해 '제로 에너지 팩토리'를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진행되는 2차 구축사업은 향후 5



대구테크노파크 권업 원장(왼쪽)과 SK텔레콤 김성환 스마트시티 유닛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개월 동안 총 127억원(국비 60억, 시비 8억, 민자 59억)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40여 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7.5MWh 규모의 에너지수요관리형 ESS 및 3MW 용량의 융·복합 분산전원을 구축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산업단지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한 사례로,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전국적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분야를 공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토론토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내달부터 연구소 운영 본격화 토론토대학의 AI인프라 바탕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 박차

LG전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Toronto AI Lab)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 인공지능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연구소는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캐나다의 대학을 중심으로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어 미래기술 확보에 적합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캐나다의 풍부한 인공지능 연구 인프라와 토론토 대학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딥러닝 분야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캐나다 현지의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력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한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오른쪽)과 토론토대학교 메릭 저틀러(Meric Gertler) 총장이 공동 인공지능 연구에 합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가 서울, 실리콘밸리, 방갈로르, 모스크바 등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 조직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CTO부문 산하 소프트웨어센터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신설하고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생체인식 등의 인식 기술을 비롯해 딥러닝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다. 올해 초에는 실리콘밸리 랩 산하에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어드밴스드(Advanced) AI를 신

설해 딥러닝, 미래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메릭 저틀러 총장은 "LG전자와 토론토대학의 산학협력은 향후 인공지능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이번 협력이 원천기술 개발에도 '오픈 파트너십' 전략이 주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컴투스, 창립 20주년 기념 '희망 나눔 바자회'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자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과 함께 '희망 나눔 바자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컴투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컴투스 본사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내 바자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바자회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개인 물품 1000여점이 모여 진행됐으며, 의류, 가전제품, 도서, 인테리어 소품 등의 기증품이 모였다.

행사 당일에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됐다. 바자회 이외에도 농구, 다트, 야구 등 다채로운 참여형 기부 이벤트가 마련됐다. 또 임직원이 직접 구운 봉어빵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봉



컴투스의 '희망 나눔 바자회' 전경. /컴투스

어빵 타이쿰' 코너도 운영돼 자사의 인기 게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사내 바자회 및 게임 이벤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나눔 문화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에 전액 기부돼 국내외 소외 계층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하이닉스, 사내벤처 '하이게러지' 아이디어 공모

SK하이닉스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하이게러지(HiGarage)에 참여할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게러지는 구성원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차고(garage)에서 창업한 것에서 착안해 명명했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ICT 등 제한은 없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도 접수한다.

하이게러지는 8월부터 9월 초까지 지원자 모집을 거친다. 10월까지 사내의 전문가의 심사를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선정된 구성원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난 별도의 공간에서 벤처 사업



화를 준비하며 최대 2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성공적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외부 벤처 전문가의 컨설팅도 수시로 진행한다.

하이게러지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벤처 기업은 최종적으로 창업과 SK하이닉스 사내 사업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창업에 나설 경우에는 창업 장려금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폐업시 재입사를 보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 사내 사업화를 선택하는 경우 SK하이닉스 사업에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회사 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사내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해당 구성원에게도 일정 부분 배분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교육 담당 김대영 상무는 "하이게러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수입차 피해보상 극과 극... BMW '적극' vs 벤츠 '소극'

BMW, 리콜 서비스 24시간 확대
사전 안전점검진단 등 대책 마련
벤츠, 불량차량 교환 요구 거절
리콜 '능장대응' 등 나몰라라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05km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원주소방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들이 업체들이 고속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차량 결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수입차 신차등록대수(14만109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152대) 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기간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의 판매량은 각각 4만1069대, 3만4568대, 5269대, 5011대로 독일브랜드가 수입차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차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결함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차량에 발생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차량 화재와 관련해 '능장대응'으로 소비자에게 비판을 받은 BMW는 차량 결함을 확인한 뒤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BMW는 지난달 27일 리콜 대상 BMW 디젤 모델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연식의 차량으로 확대해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42개 차종 10만여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 조치로 리콜 전담 고객센터 및 전국 서비스센터의 운영시간을 주말 포함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BMW는 리콜차량의 사전 안전점검 진단

을 받고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정식 리콜이 진행되는 8월 20일 이전에 EGR모듈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신차를 제공하는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다만 BMW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는 추세다. BMW 차주는 "리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BMW 차주 4명

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사후관리 등에서 소홀한 모습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달리던 차량에서 잇따라 차량 화재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지만 당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립과 학수사원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벤츠가 일반 소비자인 차주에 적절한 보상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불량이 발견된 신차를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약관상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벤츠는 지난해 퓨즈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전 세계에 판매한 2015~2017년식 C 클래스, E 클래스, CLA 세단 등 100만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5개월 뒤인 8월 31일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정비 후 차량 점검 중이던 벤츠 SUV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 사태'에 대한 능장 대응으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바 있다. 급기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정지 조치를 받아 2년여 동안 판매를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 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아우디코리아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AS 디지털 라운지 서비스'와 모바일 견적 솔루션인 '퀵터 모바일'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독일 3사를 비롯한 수입차 판매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량 증대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서비스센터 등 AS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화재나 결함으로 인한 리콜 등이 발생할 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서 적극적인 보상과 재발방지 계획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출로 '희비'... 기아·쌍용 '웃고' 현대·르노·지엠 '울고'

국내 완성차 7월 실적
기아차 '신형 K9' 등에 판매 5.1% ↑
현대차 파업 여파 등으로 수출 차질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신차와 해외 판매량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은 판매량 감소로 우울한 성적을 받아들였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 반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아차는 7월 국내 4만

7000대, 해외 18만3878대 등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총 23만 878대를 판매했다. 이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신형 K9 등 신모델 판매 호조와 더불어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영향이 컸다.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쌍용차는 같은기간 내수 9823대, 수출 3093대(CKD 포함)를 포함 총 1만2916대

를 판매했다. 이는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했다. 렉스턴 스포츠와 G4 렉스턴 물량 증대에 힘입어 올해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시장에서의 호평이 이어지며 주간연속 2교대로 공급물량을 늘렸다. 이에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4000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역대 월 최대실적을 또 다시 갱신하며 내수 성장세를 주도했다. 반면 현대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국내 판매가 소폭 증가한 반면, 파업 여파로 인한 생산 물량 차질 등으로 인해 해외 판매가 부진했다. 현대차는 7월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33만969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국내

판매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개소세 인하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3% 증가한 6만367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는 7602대, 수출은 1만963대로 총 1만856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한 수치다. 르노삼성은 '신차효과'의 부재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분위기다. 한국지엠은 국내의 시장에서 3만7046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수치다.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9000대, 수출은 8.4% 감소한 2만8046대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7월 차량 판매가 비수기와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고객 신뢰 회복 추세와 주력모델 판매가격 인하로 하락폭을 크게 줄이며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양성운 기자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U+ Family 하나카드'와 단독 제휴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U+ Family 하나카드' 통신비 월 3만원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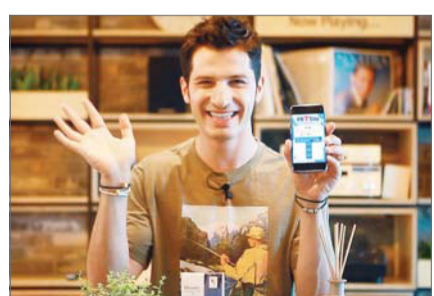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U+ Family 하나카드'와 단독 제휴를 통해 업계 최대 월 3만원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들은 이날부터 'U+ Family 하나카드'를 발급 받아 통신비를 자동이체 하면 매월 최대 2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최대 할인 한도는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다르다. 통신비를 제외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1만7000원, 70만원 이상이면 2만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말까지는 프로모션을 통해 월 할인 한도가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적용된다. LG유플러스 김세라 마케팅그룹장은 "이번에 선보인 하나카드 단독 제휴·출시로 업계 최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과 차별화된 제휴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 Family 하나카드' 제휴 서비스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25% 제휴할인은 본인·가족의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및 단말기 비용, IPTV와 인터넷 요금에도 적용 가능하다. 휴대폰을 장기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신청 ARS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스카이라이프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ARS' 운영

KT스카이라이프는 '보는 ARS'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보는 ARS'는 고객센터 음성안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서비스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음성 ARS는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안내를 들어야 했지만 '보는 ARS'는 이러한 고객 불편을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고객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청구·미납 요금 조회 ▲고장·이전 문의 ▲청구서제발행 ▲이용정지 신청·해제 ▲신용카드 즉납 ▲납부내역 수신 ▲납부계좌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T멤버십'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싸게 사고 기부도 하고

SKT 'T데이' 맞아 착한소비 제안 SK텔레콤이 8월 'T멤버십'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고객들에게 착한 소비를 제안한다. 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T멤버십은 지난 4월 멤버십 연간 할인한도를 없애고, 매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TDay'를 도입해 7월 이용자 수 250만명을 돌파했다. T Day는 매달 달력에 T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날짜에 T멤버십 전 고객에게 깜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T Day는 단순한 할인혜택을 넘어 고객들에게 착한 소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T멤버십 내 T Day이벤트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인 천연비누 '엘레멘트' 7종과 '동구밭' 3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SK텔레콤과 제휴 업체들은 고객들이 비누를 구매하면 같은 숫자의 비누를 보육원 등 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다. 고객들이 100개의 비누를 사면, 100개를 기부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ONE



사회적기업 '엘레멘트'의 이사인 알베르토가 8월 T멤버십을 통해 판매 될 '엘레멘트' 비누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FORONE'으로 유명한 '탐스(TOMS)' 슈즈와 같은 매칭 기부 방식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고객에게 소개한다. '엘레멘트'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동구밭'에서 생산한 비누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배송하는 사회적 기업인 '두손컴퍼니'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한다. 엘레멘트는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방송인 '알베르토' 씨가 이사로 활동 중인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8월 T Day에는 T멤버십에 한정판으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트 '무슈샤'와 '엘레멘트'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한 친환경 비누를 선보인다. 한정판 '무슈샤' 비누도 T멤버십으로 구매 시 예술 활동을 하는 취약 아동청소년과 신진예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부된다. /김나인 기자



왜 고민하세요
 KT에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이 있는데

데이터 ON 특/비디오 속도제어

데이터 ON 요금제



PEOPLE. TECHNOLOGY.



프리미엄 요금제는 테더링/파일공유형 P2P 별도 제공량(50GB) 내
 데이터 투게더, 데이터 셰어링은 각각 50GB 별도 제공량 내에서 이용 가능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채형석의 애경 '홍대시대' 개막... 뷰티·여행으로 대도약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40여년 만에 신사옥 본사 이전 "젊고 트렌디한 공간서 도약" 저가매물 항공사 인수도 검토

애경그룹이 이달 홍대 인근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홍대시대'를 맞는다. 화학을 제외한 AK홀딩스와 애경산업 등 계열사를 한지붕 아래로 불러들이는 이번 사옥 이전은 1976년 구로에 둥지를 튼 이후 40여년 만이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이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업무 시설로 입주한다.

현재 건축 중인 그룹 통합 사옥은 연면적 5만3909㎡으로, 복합시설동과 공공업무시설동 등으로 구성됐다.

신사옥에는 AK홀딩스와 애경산업, A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애경그룹

K캡텍과 AM플러스자산개발, 에이케이아이에스(AKIS) 등 그룹의 핵심 6개사가 총집결한다. 이외에 오는 9월에는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 호텔이 사옥 옆에 294실 규모로 들어선다.

애경그룹이 홍대입구역사에 신본사를 세운 것은 여행과 쇼핑, 생활 뷰티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홍대입구역에 건설 중인 애경그룹 복합역사 조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서다. 제주항공을 타고 온 관광객이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입구역에 내려 호텔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 같은 사례는 일본 등 해외에서는 많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됐다.

애경그룹의 본사 이전은 '홍대시대'의 시작이자, '채형석 시대' 개막의 초읽기로도 읽힌다.

애경그룹의 최고경영자이자 본사 이전 전략을 직접 세운 채형석 총괄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 임원 워크숍에서 "올해 새로운 '홍대 시대'를 열어 젊고 트렌디한 공간에서 대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화장품과 항공은 애경그룹 대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올해 3월 증시에 상장한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 비중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6289억 원, 영업이익 4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 비중을 43%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연간 매출은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새 브랜드 출시와 중국, 일본 시장 공략을 통해 화장품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항공 사업도 확장세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매출은 1조2000억 원, 영업 이익은 12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애경그룹은 시장에 저가매물이 나오면 항공사 인수를 검토해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최근 저가항공사가 계속 늘고 있어 시장에 항공사 매물이 나오면 가격을 따져보고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경그룹의 AK캡텍과 애경화학 등 화학 계열사의 증시 상승은 내년 이후 실적 추이를 보고 추진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oou.co.kr

GS25 ATM, 주요은행과 손잡고 고객 '2배'

주요 은행과 손잡은 GS25의 금융자동화기기(ATM) 이용 고객이 2배 증가했다.

GS25는 1일 올해 상반기 ATM(CD)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이용 횟수가 107.8%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영업시간 내) 102.6%,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101.2%, 밤 12시부터 새벽 9시까지는 118.4%로, 심야시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GS25의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GS25가 지난해 말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손잡고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편의점에 설치된 ATM(CD)에서 출금을 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13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됐지만, GS25가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손잡고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애플, 작년보다 순익 40%·매출 17% 상승

아이폰X 999달러 고가판매 전략 등

애플이 올해 2·4분기 매출 533억 달러(약 59조6000억원), 순익 115억 달러(약 12조86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7월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주당 순이익(EPS)은 2.34달러를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의 1.67달러와 비교해 무려 40.1%나 상승했다. 미국 월가와 매체의 예상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 454억 달러보다는 17.4% 늘어났다.

이런 애플의 우수한 실적은 지난해 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실적 부진과 사용자 수 감소 발표로 주가가 20% 정도 폭락한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애플은 2분기에 413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실적을 이끈 요인은 고가폰 판매 전략이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이폰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늘릴 수 있었다. 아이폰 평균 판매가는 724달러로 집계됐는데 기본 모델

이 999달러인 아이폰 X 등 신제품 판매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품별로 전년 동기 실적을 비교하면 최근 애플의 판매전략을 알 수 있다. 아이폰은 판매대수가 거의 비슷한데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고가 전략이 힘입어 전체 이익률을 선도하고 있다. 아이패드 판매대수가 약간 늘었지만 매출액은 47억달러로 전년 동기 49억달러보다 약간 줄었다. 시장상황이 안좋아지는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는 고가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제품인 맥은 판매대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매출액 53억달러로 전년 동기 55억달러에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이폰과 비슷한 고가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판매대수 자체는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 서비스 부문 매출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72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 서비스 부문은 ▲앱스토어 ▲애플페이 ▲아이튠즈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다. 이 서비스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롯데면세점-로레알, 시내 면세점 강화 포석

면세점·화장품업계 세계 최정상 '맞손'

입생로랑 최초 국내 유통업체 협업 인천공항 화장품·향수매장 철수 보완

롯데면세점이 시내 면세점 강화를 위해 글로벌 1위 화장품 업체 '로레알 그룹'과 손잡고 대규모 고객 초청 행사를 연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최대 규모 VIP 라운지인 롯데면세점 '스타라운지'에서 오는 3일까지 '입생로랑 뷰티 호텔'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초청된 외국인 고객만 2000여 명이 넘는다.

이번 행사는 입생로랑이 최초로 국내 유통업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다.

롯데면세점은 입생로랑이 구매력 높은 아시아권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행사의 단독 유치를 추진했다.

에밀리 콜맨 로레알 아시아-태평양 지부 입생로랑 총괄 임원은 "면세업계 세계 2위, 국내 1위인 롯데면세점의 시장 영향력과 아시아권 VIP 고객군을 높이 판단하고 협업하기로 했다"며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롯데면세점 고객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행사의 단독 개최를 통해 로레알 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



롯데면세점이 스타라운지에서 뷰티 클래스 메이크업 시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에밀리 콜맨 로레알 아시아-태평양 지부 입생로랑 총괄 임원(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롯데면세점

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내점에서 더욱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인천공항점 화장품·향수 매장 철수 여파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7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 구역(향수·화장품), DF5 구역(패션잡화), DF8 구역(전 품목)의 영업을 종료했다. 이에 기존에 인천공항 매장을 애용했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더욱더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콜라보 행사가 열리는 스타라운지는 롯데면세점이 총 100억 원과 약 5개월여의 공사 기간을 들여 지난 4월 명동

본점에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VIP 라운지다. 롯데면세점은 스타라운지 내에서 1:1 상품 상담 공간 '퍼스널 쇼퍼룸', 국내 단 두 곳뿐인 '길리안 쇼콜릿 카페',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팅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 평균 1000여 명의 VIP 고객이 방문한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입생로랑 이벤트의 국내 단독 유치를 통해 로레알과 한층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추후 더 많은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롯데면세점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 I&C '초록마을'에 CRM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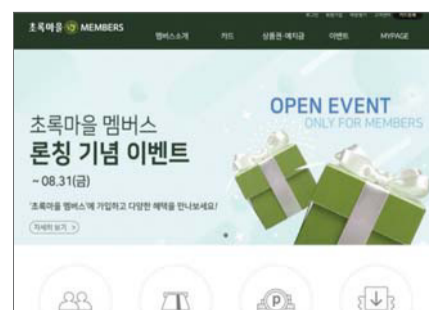
(고객관계관리)

신세계I&C(이하 신세계아이앤씨)는 유기농 식품기업 '초록마을'의 고객관계관리(CRM)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록마을은 유기농 식품 유통 기업으로 전국 47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친환경 전문 식품 브랜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기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산돼 관리하던 초록마을 고객 정보를 통합하고, 고객 별 데이터를 분

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교화된 CRM 시스템을 통해 구매 주기, 구매 단가, 자주 사는 상품 등 고객 별 구매정보, 상담이력 등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기획할 수 있다.온/오프라인 상담 채널도 통합해 고객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매장 별 상품 품질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인천시 “균형발전 중심 조직개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초석 마련 도시재생·일자리경제 등 부서 신설 청년복지·고용 해결 조직 확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민관 협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부서에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일자리창출, 남북교류 등 민선7기 공약사업 중심으로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전면적 협치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천형 협치·혁신·소통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한다. 또한 시장 직속 기구로 협치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을 두고 민관협력, 혁신, 마을공동체, 소통 업무 전담 부서를 산하에 편제한다.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원도심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로 변경하고, 그 밑에 원도심재생조정관(전문임기제)을 채용해 도시재생구과도



인천시청

시균형계획국을 이끌어 나간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으로 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구과와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해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3급 기획관을 두는 체제로 개편한다.

이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가장 의지를 보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알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위원회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경제본부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복지와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할 조직을 확대·개편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인천시장 공약 1호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위한 조직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가칭)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동해안 벨트가 선점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향후 서해평화청, 남북교류협력사업, 서해평화포럼 등 평화도시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총32명(전문임기제 제외)을 증원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안건 통과 후 2018년 10월 1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갈 첫 조직개편으로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추진할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시민을 위한 조직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w@metroseoul.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공사·출연기관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구감소 해결책은 기업유치·창업”

김영록 전남지사 인구문제 해결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서재필에서 열린 공사·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 인구문제는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출산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며 “하지만, 인구유출이 많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일자리에 연계해서 중요한 문제로 보고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그런 성과를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청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직제표에서도 도지사 위에 200만 전남도민으로 해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도

민제일주의로 일하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며 “출연기관들도 일하는 면에서 본청과 차이가 없어 그런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도청 슬로건과 관련해 “생명의 땅이 전남은 전남이 가진 여건이 생명의 땅이란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를 잘 활용해 우리도 당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항상 으뜸이란 목표의식을 갖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남도와 목포,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목포와 진도군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 수목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가 함께 열리는 기간이 같기 때문에 상생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군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기지수첩

김남중
(지방자치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진도군의회가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4년 간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과 군의원 각각 1석씩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군수)과 의결 기관(군의회)을 압도적으로 장악했다.

집권 여당에 의한 지방 권력 독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이 탄력을 받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종속되고, 견제와 감시 보다는 거수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소수 야당과 무소속에 표를 던졌던 민의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야 하는 과제 안고 있다.

다행히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뤄 구성하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나 견제 세력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이제부터 군의회는 원(院) 내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민선 7기가 비리와 부패, 낭비와 비능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틀어주어야 한다.

현재 민선 7기 군정은 출범과 동시에 ‘이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이라는 틀에 갇혀 버린 상황이다.

이 군수의 3선 성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정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주의에 빠

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1년 뒤인 오는 2020년 5월 30일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간, 소속 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줄서기 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 7기 군정이 앞으로 4년 뒤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제8대 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회 역할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감시와 강력한 견제 등 제8대 군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과거 제7대, 제6대 때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이 일해야만 한다.

군민들도 민선 7기 군정과 제8대 군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

시니어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베이비붐세대의 조기 은퇴자 등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인 40+ 시니어 창업스쿨 2기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40+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준비 없이 창업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시니어 대상 전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만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2년 이하)로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인천IT타워(남구 경인로 229) 6층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광주 서구 청사 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포토존’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청사 민원실 내 신혼부부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추억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고 구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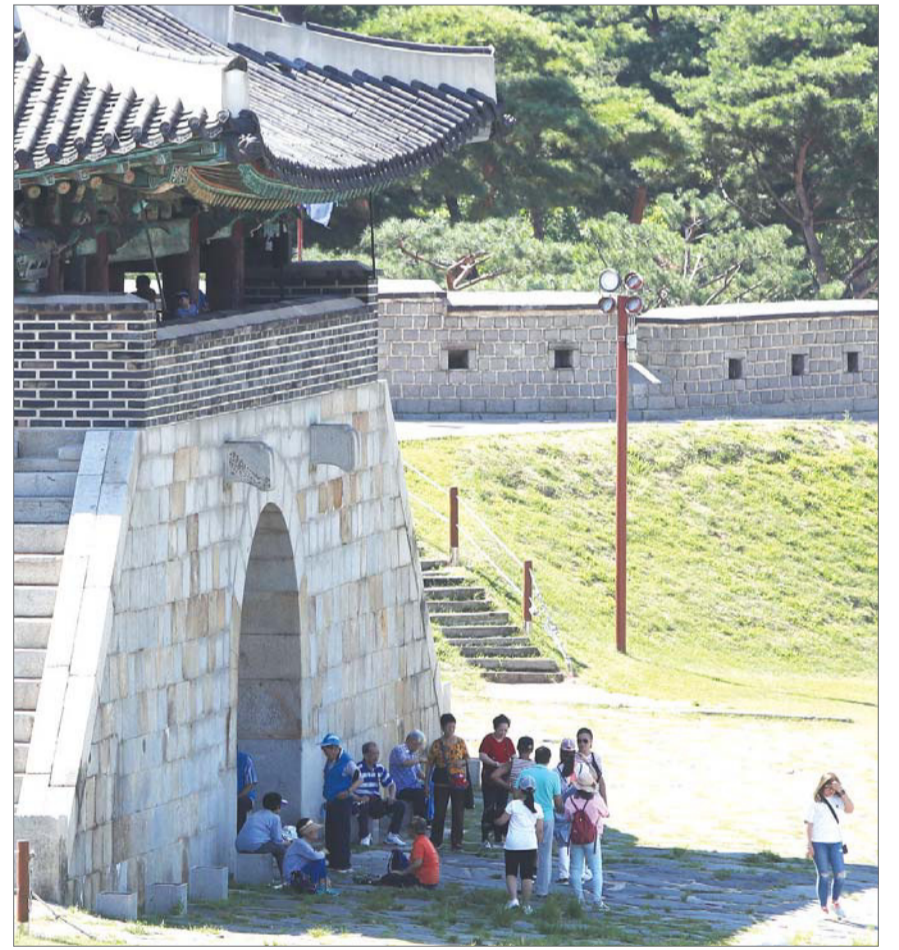
민원실내에 설치된 포토존은 신혼의 아름다움을 돌이 같이 시작해 나가는 의미로 행복한 집을 배경 이미지로 정했다.

지붕에는 ‘우리 광주 서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요즘 젊은이의 트렌드로 여행지, 맛집, 기념일 등을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고 착안했다.”며, “포토존 설치로 기존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창룡문을 찾은 관광객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에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보리·밀 종자 54t 공급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산 정부보급종(보리·밀·호밀) 종자 54t을 확보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종자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대상 품종은 4개 품종이며, 품종별 수량은 흰찰쌀보리 26t, 새쌀보리 20

t, 금강밀 7t, 곡우호밀 1t이다. 가격은 20kg 한포에 쌀보리는 소득분 2만7800원, 미소득분 2만6400원이며, 금강밀은 소득분이 2만6600원이고, 곡우호밀 소득분은 3만6000원이다. 금강밀과 곡우호밀은 전량 소득분만 공급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중 호밀(곡우)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풀사료, 건조사료, 발효사료, 지력증진 등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호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MASERATI
COLLECTION

류영진의 의약품 외교 결실... 베트남 2000억시장 지켰다

(식약처장)

(수출)

베트남 의약품 입찰 2등급 유지
류 처장 베트남 방문해 거둬들여
등급 하락하면 수출 70% 줄어
제약사 불안 해소... 한숨 돌려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2000억대에 달하는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 하락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으나 베트남 정부에서 국내 의약품의 입찰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덕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등급 유지는 올해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입찰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직접 베

트남을 방문해 등급 유지를 거듭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의 베트남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EU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시장에서 1~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2등급으로 인정하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PIC/S 가입국으로 당시만해도 의약품 입찰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의 70%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는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류 처장은 베트남 정부와 2등급 유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처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서 2등급 유지에 대해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전문을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개정은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품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과정에서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의약품 입찰기준 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류 처장도 베트남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국제규제화회의(ICH) 회원국이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 시 2등급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국내 제약사가운데 유럽 GMP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등급 경우 개별 제약사별로 직접 베트남 정부(의약품 관리기관)의 GMP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해당 등급에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PIC/S, ICH 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PIC/S 및 ICH 가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보건부에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1등급으로도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제약바이오協 “등급 하향 막은 정부에 감사...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을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재확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협회와 196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4월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 측의 6등급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이례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비롯해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격을 지켜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 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6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베트남은 의약품 수출 4위국(2017년 기준 2200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의약품 수출 규모의 급락은 불가피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협회는 "이에 식약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국은 물론 류영진 처장까지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순방 당시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우리 의약품 입찰 등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와 공조하에 베트남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보건부·제약협회·유관기관 및 현지 관계자 등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세우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류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당국자들과 외교체널 가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협회 내 베트남 TFT,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제약 기업 지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베트남 의약품 입찰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의약품의 6등급 추락을 막고 2등급을 지켜낸 것은 국익을 지켜낸 식약처의 탁월한 외교적 성과로, 향후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통상 등 국제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아 향후 글로벌 이슈 대응시 참조할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베트남 제약협회와의 미래포럼을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여성벤처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과 여성벤처 지원 '맞손'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여성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여성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정보 상호 교류 ▲연구개발 지원 및 성능평가 ▲개발제품 판로개척 등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했다. 여성벤처협회 윤소라 회장(왼쪽)이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윤갑석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고객지원 본부장에 김웅 전 광주銀 본부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김웅 전 광주은행 본부장(사진)을 고객지원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김웅 상무는 30년간 광주은행 근

무 등의 경력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금융, 기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메인비즈기업은 물론 협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전기레인지

청호나이스 하이브리드 2종 출시

청호나이스는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사진)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기 유도가열방식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열효율이 높으면서도 사용하는 데 안전한 인덕션 2구, 푹배기 등 다양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화구로 구성됐다. 또한 전기레인지 사용 중 최대



전류 초과 시 에너지를 자동 분배하는 에너지 셰어링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일드락, 자동꺼짐, 예약타이머 등의 안전장치

로 사고와 화재의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음식에 특화된 팬, 우림, 가열, 보온, 물끓임 등 5가지 세프모드를 갖춰 터치 한번으로 불 조절에서 시간 조절까지 자동으로 설정, 요리 과정이 편리하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출시 기념으로 전기레인지 구매 시 50만원 상당의 독일 브랜드 실리트사의 인덕션 전용 용기 4종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일사불 가격은 B700모델은 159만5000원, F700모델은 198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호 기자 bada@

약사 300여 명 초청 ‘지식 공유의 장’ 열어

GC녹십자 ‘GC 파머시 포럼’

GC녹십자가 약사 대상으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GC녹십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창원 등에서 지역 약사 300여명을 초청해 'GC 파머시 포럼(GC Pharmacy Forum)'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GC 파머시 포럼'은 특정 질환을 주제로 선정해 저명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학술 행사다.

회사 측은 제품 홍보에만 그치던 기존 포럼의 형식을 탈피해 질한 별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약국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약사 대상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증'을 주제로 김미정(한양대재활의학과), 이종화(동아의대 재활의학과), 이주연(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손기호(경성대학교 약학대학) 교



수 등이 '통증'과 관련된 질환과 치료법, 의약품의 특징 등 약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의학정보를 소개했다. /박인용 기자

/박인용 기자

멕시코 동부 넘어 서부 지역까지...

현대그린푸드, 진출 2년 만에 단체급식 수주 급팽창

멕시코서 단체급식 사업장 5곳 운영 'K-FOOD' 알리고 메뉴 현지화 힘써

현대그린푸드가 멕시코 현지 단체급식사업 확대에 나선다. 기존 멕시코 동부 지역에 이어 서부 지역에 신규 단체급식 사업을 추가로 수주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종합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는 멕시코 서부 지역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트랜스리드'의 직원식당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트랜스리드 근로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일평균 약 7000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출 규모는 연간 최대 40억원이다.

특히 떡볶이 탕, 조림, 볶음 등이 가능한 직화 조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한국식 조리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정통 멕시코 요리 외에도 다양한 한식



멕시코 몬테레이 사진.

/현대백화점그룹

을 선보이며 'K-FOOD'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멕시코 현지 직원식당에서 인기가 높은 잔치국수, 갈비, 제육볶음 등 한식 메뉴를 신규 식당에서도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한식 레시피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기존에 멕시코 현지 식품업체가 현대트랜스리드의 직원식당을 운영했으나, 맛과 위생에 대한 현지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업체 측이 현대그린푸드에 직원식당 운영을 제의해 와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했다.

이번 직원식당 운영으로 현대그린푸드는 멕시코 지역에서 총 5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하게 됐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16년 멕시코 동부에 위치한 몬테레이 지역의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을 시작으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멕시코 진출 2년 만에 단체급식사업이 확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양한 메뉴 개발과 위생 관리 시스템 등 한국식 단체급식 시스템이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16년부터 멕시코 현지식을 포함해 1500여 개의 단체급식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멕시코 문화를 고려해 '어린이 장난감 받는 날(Dia de los Reyes Magos)' 등 멕시코 현지 기념일에 멕시코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등 메뉴 현지화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단체급식장에서 사용하는 100여 개 항목의 위생 점검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해 기존 현지업체가 운영했던 직원식당보다 업그레이드된 위생 상태를 선보이고 있다.

장재락 현대그린푸드 푸드서비스사업부장(상무)은 "맛과 위생을 앞세운 한국식 단체급식 서비스가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호평받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현지 기업과 현지인들의 호감도도 높아져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해외 단체급식사업으로 4개국(쿠웨이트·UAE·멕시코·중국) 50개 사업장에서 6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해외 매출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 "피코크 '고수의 맛집' 8종 맛보세요~" 이마트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피코크 고수의 맛집' 상품 8종을 종류에 상관없이 '2만원 이상 구매시 3천원 할인'하는 행사 진행을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마트24, 홈캉스족·오피스족 겨냥 할인행사

이마트24가 한 달간 홈캉스족과 오피스족을 겨냥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홈캉스족(1~2인 가구)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봉지면류음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7월 독신주택가 입지의 점포를 대상으로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봉지면류음 매출이 평균 대비 190%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마트24는 일반 라면을 비롯해 쫄면, 볶음면 등 다양한 종류의 봉지면류

음 상품 5종을 선정, '라면 최저가 도전'을 기획했다. 행사상품은 진라면 순한맛(5입), 진라면 매운맛(5입), 진짜쫄면(4입), 불닭볶음면(5입)이다.

봉지면류음 상품 5종을 제휴카드(BC카드)로 결제 시 판매가의 최대 40% 할인된 가격인 2140원~3840원에 구매 가능하다. KT 멤버십을 적용하면 10% 추가 할인된다. 또한, 냉장커피 21종을 종류에 상관없이 3000원 이상 구매 시 30%를 할인해준다. 여기에 제휴카드(우리카드, NH농협카드)를 결합하면 판매가의 최대 56%까지 할인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롯데 온리 페스타' PB상품 최대 50% 할인

백화점·하이마트 등 8개 계열사 엘포인트·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롯데 유통사업부문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롯데 온리 페스타(LOTTE Only Festa)'를 진행해 가계 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롯데 유통사업부문의 백화점, 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마트 등 8개 계열사의 PB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찾는 고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 대표 PB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의 경우 우유, 생수, 요구르트 등의 대표 생필품군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먼저 '롯데 온리 페스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롯데 유통사업부문 8개 계열사 PB브랜드 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111명에게 최대 1000만 엘포인트(L.Point)를 제공한다. 또한 각 계열사별로 방문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해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할인권등을 증정한다.



직원들이 롯데백화점 본점 엘리든 매장에서 롯데 온리 페스타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은 '롯데TOPS', '엘리든' 등 대표 PB브랜드의 여성리유, 가방, 주얼리, 스포츠웨어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는 '하이메이드'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여름 가전용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냉장고, TV 등 행사 상품 구매 시 엘포인트를 최대 2만 포인트 지급한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셀렉트 티라미수빙수'를 포함한 6종의 인기 PB상품을 1+1으로 판매하며, 롯데마트는 '온리프라이스', '요리하다', '초이스엘'

에 대해 합산 구매 금액 7만원 이상인 모든 고객에게 5000원 할인권을 즉시 증정하며, 온리프라이스 200대 품목 구매 시 엘포인트를 20배 적립해준다.

롯데 유통사업부문 이원준 부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동일 상품과 비교해 가성비가 뛰어난 롯데 유통사업부문 계열사의 PB브랜드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GRS, AI 활용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

롯데GRS가 무인주문 기기, 스마트오더 등에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채널 서비스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는 카카오 챗봇이 매장 직원의 역할을 수행해 대화하듯 간편한 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로 위치 기반 서비스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안내하고, 별도 대기 시간 없이 픽업이 가능한 서비스다.

사용법은 롯데리아 또는 엔제리너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챗봇으로 주문하기'를 누르거나, '롯데리아 챗봇', '엔제리너스 챗봇'을 검색해 대화를 나누면 된다.

이후 인근 매장을 선택하면 베스트 메뉴가 자동으로 추천되고, 원하는 메뉴가 없는 경우 키워드 검색하거나, 하단의 버튼으로 호출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대화형의 문장의 의도를 파악해 챗봇이 이해하고 답변한다. /박인용 기자

하이트진로, 수출 전용 '자두에이슬' 출시

하이트진로가 미국시장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8월부터 미국 전 지역에 '자두에이슬' (사진)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자몽에이슬을 출시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청포도에이슬을 비롯해 이슬톡톡, 망고링고 등을 출시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과일리큐르에 대한 현지인 반응이 좋아 세 번째 신제품인 자두에이슬을 추가 출시해 성장에 이거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월 수출전용 브랜

드로 자두에이슬을 해외에 출시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자두에이슬은 참이슬의 깨끗함과 자두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최고의 조화를 이룬 13도의 과일리큐르로, 사전 글로벌 소비자 시음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과일리큐르의 성장에 힘입어 진로아메리카의 실적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2306만달러(약 258억원)를 기록했다. 미국시장에서의 이 같은 성장은 L.A를 중심으로 한 교민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참이슬, 하이트 등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장은 "자두에이슬 출시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리큐르 제품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음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metr

행사개요 및 문의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 - 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 최 : 메트로경제

후 원 : 북방경협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대전 본사에서 2018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 윤리경영 앞장 '청렴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소상공인은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18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흥빈 이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약 200여명의 결의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가 순차적 결의대회를 통해 총 649명의 직원이 청렴결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5개년 중장기 윤리경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청렴 달성 ▲ 스스로 점검·관리하는 청렴진단 구성 ▲ 부패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감사 지원 ▲ 윤리의식을 내

재화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추진과제로 '청렴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 수상작으로 발굴된 '내 清廉(청렴) 지킴이', '동행출장 여비수령 조항'을 신설한 것과 함께 ▲ 정책고객대상 청렴소통체계 구축 ▲ 고위직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등 27개 과제도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만나는 서민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조직 내부구성원 한명, 한명의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노하우' 나눈다

안전보건공단 우수사례 사업장 전파

최근 갑질 고객문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기업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기업의 우수 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인텔레서비스는 '직원의 주체적인 삶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삼고 콜센터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심리상담실을 통한 면담-심층면담-연계치료 과정을 제공하고 블랙컨슈머 응대 프로세스를 통한 전화를 끊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통화연결음을 상담사의 가족·친구가 녹음한 음성으로 바꾸고 고객이 상담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

통체널도 구축해 접수된 고충 개선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접수된 고충의 93.7%가 해결됐다.

또한, 심신이 지친 상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사내카페, 안마의자가 설치된 휴게실, 스트레스 해소존 등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공단은 "위 사례를 통해 직원 만족율은 87.2%로 조사됐다"며 "1년 초과 근무인원의 이직율이 기존 2.2%에서 1.3%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300인 미만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이블랜드호텔앤리조트는 'HEALING TREE PROJECT 2020'을 슬로건으로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감정노동 정도 파악을 위한 검사 및 개별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 핫라인, 웃음·미술치료, 분노조절 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농협, 농민 전용 방송 만든다

'NBS 한국농업방송' 14일 개국 김병원 농협회장, 환경TV 인수 농산물 시세정보 실시간 전달

농민을 위한 케이블 채널 'NBS 한국농업방송(이하 NBS)'이 오는 14일 개국한다.

1일 농협에 따르면 농민신문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롯데호텔에서 NBS 개국 행사를 개최하고 첫 방송을 시작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겸 농민신문 회장은 '환경TV'를 인수해 농업방송을 준비해 왔다.

농민신문은 지난달 NBS의 성공적인 개국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NBS는



법인이 아닌 농민신문사의 매체 형태로 운영된다.

NBS는 도시와 농촌 간 가교 역할과 함께 농업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축산물의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가락동365', 영농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전해주는 '농업날씨', '농업뉴스' 등이다.

채널 번호는 환경TV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국과 동시에 채널이 NBS로 변경된다.

NBS 개국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경영 철학과 의증이 적극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미래농업인 육성과 농촌 활력화 등을 강조했다.

또 농협 계열사의 경우 설립 취지인 농업인 지원에 맞게 협동조합 정신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농업인에게 존재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계열사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NBS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로 생명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해외농업, 농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마을, 24절기를 활용한 농사정보 제공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Made in Korea' 시대 개막



8월부터 100% 국산만 신규입점 기존제품 빠르면 내년초부터 국산만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언하고 8월부터 신규 입점 제품에 대해 100% 국산만 판매하기로 했다.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등 기존 입점 제품 중 국산이 아닌 외산에 대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퇴출시켜 내년부터는 순수 국산 제품만 100%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7월17일 보도)

공영홈쇼핑은 1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3주년 기념식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산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 100% 취급하기로 하고 3년전 닷을 올린 뒤 3년 만에 다시 '100% 국산 제품 판매'를 선포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이 그동안 판매하던 농수산물은 모두 국산이었지만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절반 가량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등으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들이었다.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언하고 8월부터 신규 입점 제품에 대해 100% 국산만 판매하기로 했다.

특히 의류나 생활용품, 운동기구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자재 공장, 또는 현지 위탁 생산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국산이 아닌 'made in OOO' 제품을 신규 입점은 이달부터, 기존 제품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의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은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 ▲우수 제품의 명품화 ▲스타트업(Start-up) 제품 판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영홈쇼핑의 본분을 찾자는 의지에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당장 이날부터 기존 판매 및 발주 상품을 제외한 신규 해

외 OEM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면서 "기존 상품도 협력사와의 협의로 재고 소진시 중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전체 판매 상품 중 20%,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 기준으론 약 40% 가량이 해외 OEM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이날 3주년 기념사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기업육성을 발굴해 이들의 판로 개척을 돕자"며 "우수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공영홈쇼핑이 일자리 확산과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공영홈쇼핑은 아울러 ▲소비자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는다 ▲공정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명예선언'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6 | 해질 / 19:40

8월

2일

음력 : 6월 21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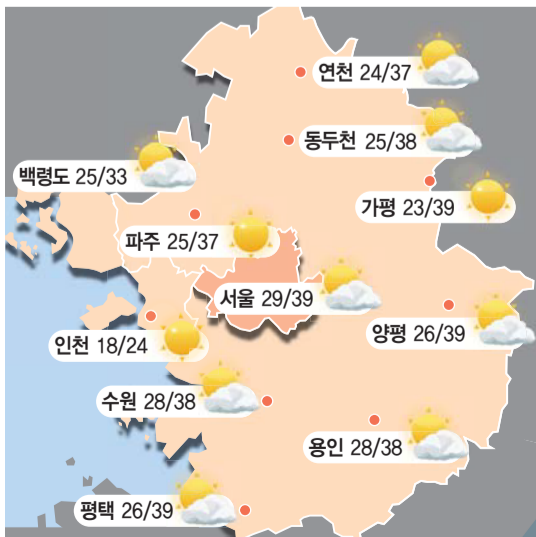
39~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도로공사 온라인 국민소통단 'ex패널' 공개모집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단, ex국민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ex국민패널은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선발된 ex국민패널은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 혁신계획 실현 방향 설정, 계획 과제의 적정성 검토,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응모는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패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나온다.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도 등 활동 성과가 탁월한 우수 패널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비가 지급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자전거 발전史는 인류 역사… 과학·배려의 아이콘”



인터뷰 자전거 전시회 개최
구자열 LS회장 겸 송강재단 이사장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展에 30년간 수집한 자전거 전시 6박7일간 ‘트랜스 알프스 챌린지’ 질주… 동양인 최초 완주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운송수단이다. 바퀴와 프레임, 안장과 핸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지만 인류에게 전해지는 감성은 그 이상이다.”
송강재단 이사장인 구자열 LS회장(사진)은 한 평생을 자전거와 함께 달려왔다. 지난 2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에 전시된 105대의 자전거는 모두가 30년간 모아온 소장품이다.
구 회장은 “자

전거에 대한 역사와 과학적인 발전과정을 어린이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구 회장은 수집한 자전거 중 ‘볼렌 쉬레그 드라이자네’를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이라고 꼽았다. 그는 “드라이스 남작이 1820년에 제작한 볼렌 쉬레거는 독일 국보이기 때문에 소장할 수가 없었는데 운 좋게 프랑스에서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자전거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장품 중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자전거로 영국에서 1870년에 개발된 ‘peyton&peyton’을 꼽았다. 제빙틀의 페달을 이용해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서 주행하는 자전거다.
구회장과 자전거와의 첫 만남은 어렸을 때다. 구 회장은 “어린 시절 미군부대에서 구입한 중고자전거로 동생과 둘이서 울과 대구를 일주한 경험이 자전거와의 강렬한 추억이었다” 회고했다. 목표점을 향해 갈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가도 끝까지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야말로 자전거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고 전한다.
구 회장의 ‘자전거 사랑’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2002년 유럽 알프스산맥의 600여km 구간을 6박 7일간 질주하는 ‘트랜스 알프스 챌린지’를 동양인 최초로 완주했을 정도로 자전거 마니아다.

2009년부터는 대한자전거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구회장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상생활보다 조금 빠른 스피드로 도시와 자연을 즐길 때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해방감과 자유, 그는 그것을 자전거의 달콤한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자전거의 힘이다.
구회장은 끝으로 국내에도 자전거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구회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배려’다”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 차량 운전자 간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를 배려하는 믿음 속에서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시청 앞 그늘막 놓고 서울시 vs 중구 ‘신경전’ 상반기 ‘나눔주차장’ 900면 추가 확보

중구, 시간부 한마디에 그늘막 설치 ‘구민 요구장소 아니다’ 다시 철거 중구청장 ‘부끄러운 규정 반성’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있지만, 건너편 덕수궁 쪽에는 그늘막이 없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중구청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서구청장은 시청 앞에 4개의 그늘막이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 시간부의 요구를 즉각 이행한 것. 중구청은 주민 거주지가 아닌 서울광장에 그늘막 설치를 지시한 시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가 부당한 요구가 아닌 공문을 보낸 정석절차였다며 관계자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와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달 30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가 늦어지는 데다 위치도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곳이 많다”며 “서울광장 그늘막은 시간부의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만에 설치한 것이다. 시의 눈치를 본 부끄러운 구정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국 중구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4개의 그늘막을 철거해갔다. 그늘막 회수와 관련해 시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이모(34) 씨는 “중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교가 중구에 있는 학생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면서 “중구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나, 생활권이 중구인 사람도 생각해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중구는 지난 30일까지 관내 50곳에 그늘막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늘막 설치 장소가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시청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 등 대로변 위주여서 구민 요구와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구는 예정된 설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 수요를 조사해 그늘막 위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 입장에서는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다.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구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그늘막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해 생활권이 중구인 시민들



서울시는 중구가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그늘막을 철거한 자리에 그늘막을 새로 세웠다.

을 위해 그늘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같은 자리에 ‘1·SE OUL·U’가 새겨진 그늘막 4개를 설치했다. 대학생 이정현(25) 씨는 “그늘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광장을 지나 덕수궁 쪽으로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시청 쪽에는 그늘막이 있고, 건너편에는 없는 게 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가 그늘막 설치 협조 요청을 수용했다가 다시 회수해가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라며 “그늘막 설치 주체는 시가 아닌 각 구청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구청장은 눈치 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다가 수거한 그늘막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중구청 광장에 계속 두겠다고 했다. 구가 광장 내 그늘막 조성·철거에 투입한 비용은 약 1000만원이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0

실적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강북구에 위치한 A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건물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을 상반기 이 같은 나눔주차장 900면이 추가로 확보됐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

는 1만면을 돌파했다.

유류 주차공간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수질검사 모습.

/서울시

서울 주민센터 아리수 음수대 ‘먹는물 적합’

무작위 25곳 선정 수질검사 결과

서울시내 자치구 내 25개 동주민센터를 무작위로 선정,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적합’ 판정이 나왔다.

서울물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의 세곡동 주민센터,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로 무작위로 동주민센터를 선정해 아리수음수대 수질을 검사했다.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0항목

등 총 17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은 물론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및 페놀류, 농약류 등의 건강영향 유기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 수돗물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잔류염소는 모두 0.1~0.3mg/L 이내로 검출돼, 염소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수질 안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시원한 바람부는 한강으로 ‘북강스’ 떠나요”

15일까지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으로 북강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서울책공원에서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행사에는 서울·경기·전남지역의 헌책방 20곳이 참여해 고

서, 단행본, 전문도서, 어린이도서 등 10만권의 책을 전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에서는 ▲헌책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헌책 장터’ ▲헌책으로 만든 대형 아치 ‘책의 문’ ▲1940~1980년대 교과서, 책결상 등을 전시하는 ‘추억의 시간여행’ ▲신영복 선생 저서 ‘필사체험’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판매하는 ‘일일 책방’ 등을 즐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 모습.

/서울시



[산업]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04

[에듀] 경희대, 세계대학평가 국내 첫 10위권 진입 L4



세계 희귀 자전거 다 모여라! 최초의 자전거부터 소방 자전거까지... 200년 역사 한눈에

Q 르포 |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특별 기획전에 가다



1817년에 제작된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자네'의 모습.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페달이 없다.

“평소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특이하게 생긴 옛날 자전거를 보게 돼서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난달 31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만난 홍성관(12)군은 용돈을 모아 자전거를 구입해 타고 다닐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던 홍군은 관련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특별 기획전을 찾았다.

기자가 방문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105대의 자전거들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의 발전과정과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200년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전시한 기획전이다. 전시장 안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로 붐볐다.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자 1817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자전거 '칼 폰 드라이스 드라이자네'가 눈에 띄었다. 현재 독일 국보인 이 자전거는 발명가 드라이스 남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진 드라이자네는 페달이 없어 땅을 박차면서 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최대 속력은 시속 14km다.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니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큰 '하이 휠' 자전거가 눈에 띄었다. 배부영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팀 연구사에 따르면 이 자전거는 일명 '빈 폴 자전거'라고도 불린다. 1878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되며 그 이름을 알렸다. 그는 "앞 바퀴에 페달이 달린 이 자전거는 높이만 2m가 넘는다"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이 뒤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19세기 당시 부유층 자제들이 과사용으로 타고 다녔다"고 전했다.



1925년 제작된 '밀레 소방 자전거' 소방장비가 장착돼 있다



반더러 스프링 타이어 자전거의 모습. 바퀴가 고무가 아닌 스프링으로 제작됐다.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특별기획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시된 '하이 휠' 자전거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관객.

전 세계에서 수집 105대 자전거 전시 동호회 등 마니아층 방문객에 인기 국립과천과학관서 10월 28일까지

관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자전거는 '밀레 소방자전거'였다. 1925년에 제작된 이 자전거는 소방호스 등 불을 끄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장착돼 있으며 좁은 길을 지나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바퀴가 고무가 아닌 스프링으로 제작된 자전거도 있었다. '반더러 스프링 타이어 자전거'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2차대전 시기인 1941년 독일에서 군수물자로 징발된 고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배부영 연구사는 "이 자전거는 바퀴가 스프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온 에린(30)씨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왔는데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전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말했다. 그는 "페달 없는 자전거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보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은 소방용 자전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회는 마니아층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부산에 사는 이상식(46)씨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한 지 올해로 15년째다"며 "휴가를 얻어 부산에서 과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방문했다" 말했다. 그는 "해외에는 자전거 관련 전시회가 많은데 비해 국내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접할 기회가 없어 평소 아쉬웠다"며 "국내 자전거도 외국 자전거처럼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출시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과 송강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27일 개막해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배부영 연구사는 "지금은 자전거 인구 1000만명 시대"라며 "자전거만큼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질수록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